

미 증시, 금리하락 불구 정치 불확실성과 실버게이트 여파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위험자산 위축되며 부진

•미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버게이트(-42.16%) 자진 청산 소식에 따른 금융주의 부진이 발목을 잡으며 상승 반납.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와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 전환. 일부 기술주가 호재로 인해 강세를 보이며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낙폭 확대(다우 -1.66%, 나스닥 -2.05%, S&P500 -1.85%, 러셀2000 -2.81%)

특징 종목: 금융, 2차전지, 중국 기업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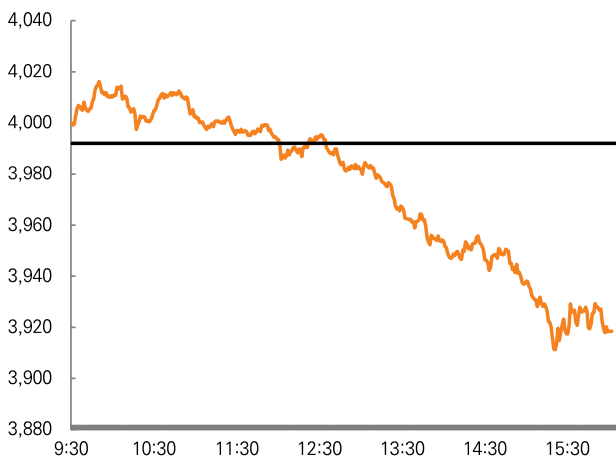
•실버게이트(-42.16%)가 FTX 사태의 영향으로 자진 청산한다는 소식에 급락. 관련해서 시그니처 뱅크(-12.18%)등 지역 은행들과 JP모건(-5.41%)등 대형 은행들도 동반 하락. SVB 파이낸셜(-60.41%)도 급락했는데 17억 5천만 달러의 주식 공모 계획 발표 및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도 영향. GM(-4.88%)은 사무직원들에게 자발적인 이직을 제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테슬라(-4.99%)는 중국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CATL 순이익 급격한 둔화 등으로 인한 여파로 부진. 이는 쿼텀스케이프(-6.39%), 알버말(-6.52%) 등 2차 전지 업종의 부진을 야기

한국 증시 전망: 미 정치 불안 속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45%, MSCI 신흥 지수 ETF는 2.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3.6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0% 하락. KOSPI는 0.7%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장 후반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더불어 예산안에 미국 자본의 대 중국 기업 투자를 통제하는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미-중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부담.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지루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 하락은 제한할 것으로 예상. 관련해 3월 16일 열린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 정치 불확실성으로 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19.09	-0.53	상해종합	3,276.09	-0.22
KOSDAQ	809.22	-0.58	홍콩항셍	19,925.74	-0.63
DOW	32,254.86	-1.66	베트남	1,055.95	+0.65
NASDAQ	11,338.35	-2.05	유로스톡스 50	4,286.12	-0.05
S&P 500	3,918.32	-1.85	영국	7,879.98	-0.63
캐나다	20,086.72	-1.28	독일	15,633.21	+0.01
일본	28,623.15	+0.63	프랑스	7,315.88	-0.1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고용지표 둔화 ②바이든 예산안 ③실버게이트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주 발표된 19만 건에서 21만 1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연속 신청 건수도 164만 9천 건에서 171만 8천 건으로 증가. 여전히 20만 건 내외 증가에 그쳐 고용이 견조함을 보였으나, 증가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 고용의 둔화 조짐이 부각.

이런 가운데 10건 이상의 대량 해고자 수를 기반으로 한 2월 대량 해고자수는 1월에 발표된 10만 3천건에서 7만 8천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발표된 1만 5천 건에 비해 높은 수준. 1~2월 전체로 보면 18만 713건을 기록해 지난해 두 달 동안 발표된 3만 4,309건을 크게 상회했으며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특히 지난해 전체 대량 해고자수가 36만여건을 기록했기에 이미 2개월 동안 지난해 수치의 50%를 기록하는 등 대량 해고자가 증가함을 보여줌.

2개월 동안의 해고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기술업종이 6만 3천여건을 기록해 지난해 187건에 비해 급증했으며 그 외 소매판매, 금융, 헬스케어, 서비스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해 지난 2월 고용보고서에서의 비농업 고용자수 깜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둔화 가능성이 더욱 확대. 이러한 지표 결과로 국제 금리가 크게 하락했으며, 달러화도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임.

바이든 대통령이 총 지출 6조 8,830억 달러, 수입 5조 360억 달러 규모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 이번 예산안을 감안하면 미국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지난해 97%에서 109.8%로 증가. 이번 예산안은 2024년 GDP 1.5% 성장, 실업률 4.6%, 소비자물가지수 2.4% 상승을 기반으로 작성. 한편,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법인세도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등의 세금 정책도 포함. 관련해서 3월 16일 열린 재무장관이 상원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됨.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미국 대통령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예산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 여기에는 정부 지출, 수입, 재정적자의 추정치, 또 정부 사업 예산, 경제 전망 등이 포함. 그러나 의회는 이를 참조할 뿐 따르지는 않음. 앞으로의 일정은 백악관이 발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상, 하원이 예산 결의안을 만들고 의회에서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지출 승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확정. 그렇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향후 정부 섯다운과 부채한도 관련 협상 난항 등 많은 정치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돼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가상자산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42.16%)가 회사 운영을 종료하는 등 자발적인 청산에 돌입. 이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예견되어 왔던 사항. 실버게이트는 1988년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기지 전문 은행으로 설립됐으며 2013년 이후 가상 자산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가상자산 전문은행으로 전환. 이후 고객 예치금이 급증하는 등 사업 확장이 진행되자 여타 지역 은행들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

그런 가운데 FTX가 파산 보호신청을 하자 실버게이트 고객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을 단행. 이에 실버게이트는 자진 청산 방법으로 처리. 이로 인해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여타 지역 은행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전반적인 금융주 부진으로 확대.



금융주, 자동차, 2차 전지 업종 부진

실버게이트(-42.16%)가 FTX 사태의 영향으로 자진 청산한다는 소식에 급락. 관련해서 시그니처뱅크(-12.18%),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16.51%), US뱅크프(-7.01%) 등 지역 은행들이 급락. JP모건(-5.41%), BOA(-6.20%), 웰스파고(-6.18%) 등 대형 은행들도 동반 하락. SVB파이낸셜(-60.41%)도 급락했는데 17억 5천만 달러의 주식 공모 계획 발표 및 부진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도 영향. 반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페이팔(+0.12%)은 반사이익으로 상승했는데 CEO가 사업 전반에 걸쳐 기대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영향.

GM(-4.88%)은 사무직원들에게 자발적인 이직을 제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이는 업황에 대한 불안을 야기해 포드(-4.08%)도 하락. 테슬라(-4.99%)는 중국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CATL 순이익 급격한 둔화 등으로 인한 여파로 부진. 이는 쿼텀스케이프(-6.39%), 알버탈(-6.52%), 프레이 배터리(-8.00%) 등 2차 전지 업종의 부진을 야기

크레디트 스위스(-4.48%)는 미 증권거래 위원회의 전화 이후 2022년 연례 보고서 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엡시(-4.81%)는 제프리스가 마케팅 비용 증가와 구매자 이탈 증가 등을 이유로 매수에서 언더퍼폼으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징동닷컴(-11.28%)은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 알리바바(-4.12%) 등도 바이든 예산안에 미국 자본 투자 통제를 위한 예산 책정 소식에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46	대형 가치주 ETF (IVE)	-2.09
클린테크 ETF (CTEC)	-1.79	중형 가치주 ETF (IWS)	-2.41
소매업체 ETF (XLY)	-2.38	소형 가치주 ETF (IWN)	-3.08
온라인소매 ETF (EBIZ)	-3.33	대형 성장주 ETF (VUG)	-1.80
미국 인프라 ETF (PAVE)	-2.20	중형 성장주 ETF (IWP)	-2.26
핀테크 ETF (FINX)	-2.75	소형 성장주 ETF (IWO)	-2.5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49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55
클라우드 ETF (CLOU)	-3.0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91
사이버보안 ETF (BUG)	-3.14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10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63	미국 국채 ETF (IEF)	+0.6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33	하이일드 ETF (JNK)	-0.62
바이오섹터 ETF (IBB)	-1.92	신흥국 채권 ETF (EMBD)	-0.16
로봇&AI ETF (BOTZ)	-1.65	물가연동채 ETF (TIP)	+0.26
반도체 ETF (SMH)	-1.9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유틸리티	330.48	-0.84	+0.44	-1.93
필수소비재	744.56	-0.95	-1.39	-1.47
헬스케어	1,454.63	-1.03	-2.11	-4.86
에너지	637.81	-1.36	-2.75	-4.23
IT	2,408.92	-1.45	+0.76	-2.14
산업재	851.00	-1.47	-1.66	-0.80
커뮤니케이션	173.18	-2.22	-0.68	-4.57
부동산	233.81	-2.29	-2.20	-7.09
경기소비재	1,083.03	-2.36	-2.60	-7.02
소재	502.05	-2.54	-4.29	-2.53
금융	555.68	-4.17	-5.44	-7.9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국 정치 불안 속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45%, MSCI 신흥 지수 ETF는 2.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23.6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0% 하락. KOSPI는 0.7%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한 후 베이지북 발표 등으로 장 마감 앞두고 반등하자 상승 출발. 그렇지만, 미국의 예산안 관련 법인세 인상 등이 보도되자 미국 발 정치 불확실성 우려 속 하락 전환. 여기에 2차 전지 업종이 테슬라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부담. 더불어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외국인의 순매도 확대 등 수급적인 요인도 영향. 이 여파로 KOSPI는 0.53%, KOSDAQ은 0.58%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장 후반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최근 유입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도 영향을 줘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 더불어 예산안에 미국 자본의 대 중국 기업 투자를 통제하는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미-중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부담.

한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한 점은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장 초반 국채 금리 하락은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것인데 이는 연준의 3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일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기인. 그렇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채권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 투자심리에 부담.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지루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 하락은 제한할 것으로 예상. 관련해 3월 16일 열린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 정치 불확실성으로 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둔화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19만 건이나 예상치인 19.5만 건을 상회한 21.1만 건을 기록. 4주 평균은 19만 3천 건에서 19만 7천 건으로 증가.

미국 2월 대량 해고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10만 2,943건보다 감소한 7만 7,770건으로 발표.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발표된 1만 5,245건을 크게 상회했으며 1~2월 수치는 18만 6,350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치인 36만여 건의 50%를 2개월만에 기록.



미국 국채 금리, 고용지표 부진과 정치 불안으로 급락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미국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심리 위축 여파로 하락 전환. 특히 파월 연준의 강한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로 인한 정치 불안까지 겹친 점이 투자 심리 위축 요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한 때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

달러화는 미국 고용지표 둔화 등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고용지표 부진이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확대를 일부 제어할 것이라는 점이 영향. 이는 금요일 발표되는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결과가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다만, 장 마감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약세폭 축소. 엔화는 달러 약세에 이어 장 후반 미국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폭 확대.

국채금리는 부진한 고용 지표에 하락 출발. 특히 대량 해고자 수가 급증하는 등 고용 불안 우려가 높아진 점이 단기물 중심 하락폭을 확대. 이런 가운데 미 바이든의 예산안 발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채권 수요가 높아져 하락폭 확대. 한편, 30년물 국채 입찰은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37배를 소폭 상회한 2.35배를 기록해 영향이 크지 않음.

금은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위험 자산 선호심리 위축 여파로 부진. 곡물은 유엔과 러시아의 13일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협상 소식에 밀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옥수수도 동반 하락. 아르헨티나의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 감소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밀과 옥수수의 하락폭이 컸음.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48%, 철근은 1.93%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5.72	-1.43	-3.33	Dollar Index	105.267	-0.37	+0.23
브렌트유	81.59	-1.39	-3.82	EUR/USD	1.0577	+0.30	-0.19
천연가스	2.54	-2.67	-10.20	USD/JPY	136.11	-0.91	-0.48
금	1,834.60	+0.92	-0.28	GBP/USD	1.1916	+0.60	-0.25
은	20.17	-0.10	-3.69	USD/CHF	0.9337	-0.86	-0.92
알루미늄	2,328.00	-1.10	-2.98	AUD/USD	0.6586	-0.05	-2.14
전기동	8,853.00	-0.65	-1.18	USD/CAD	1.3835	+0.22	+1.75
아연	2,974.00	-0.03	-2.43	USD/RUB	75.8897	-0.21	+0.57
옥수수	611.50	-2.12	-3.39	USD/BRL	5.1680	+0.51	-0.84
밀	665.75	-3.24	-6.66	USD/CNH	6.9803	+0.17	+0.86
대두	1,510.75	-0.30	+0.27	USD/KRW	1,322.20	+0.06	+0.50
커피	175.05	-1.30	-3.92	USD/KRW NDF1M	1,323.65	+0.67	+1.0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07	-8.42	-14.85	스페인	3.645	-1.80	-7.40
한국	3.720	+0.80	-11.40	포르투갈	3.495	-1.60	-12.90
일본	0.506	+0.10	+0.10	그리스	4.418	-3.30	-12.00
독일	2.643	-0.30	-10.80	이탈리아	4.389	-3.90	-22.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